

찰스 디킨스 작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by Charles Dickens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내용 연극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명동예술극장에서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토론 등 공연 관람 후 수업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대상 고등학생 이상

목 차

작품소개

- 시놉시스	-----02
- 등장인물	-----05
- 배경분석	-----09
- 키워드	-----12

작가소개	-----15
------	---------

연출소개	-----17
------	---------

토론답(안)	-----19
--------	---------

시놉시스

**“신사의 매너에 대해서. 신사의 패션에 대해서. 신사의 자격에 대해서.”
“핍, 무엇이 신사를 만드는 줄 알아?”**

“너는 이제 대장간 때꼭재기가 아니야. 너는 이제 구박받는 짐 덩어리가 아니야.”

어린 핍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대장장이인 매형 조, 누나 베스와 함께 살고 있다. 핍은 묘지에서 우연히 감옥선을 탈출한 죄수를 만나고, 그에게 족쇄를 풀 수 있는 줄칼과 빵을 가져다준다. 어느 날 핍은 이웃에 사는 헤비섬의 새티스하우스를 방문하고, 아름다운 에스텔라를 만난다. 결혼식 날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헤비섬은 배신감 때문에 양녀인 에스텔라를 이용해 남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한다.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야. 찢어버려. 갈기갈기 찢어버려. 남자들의 가슴을.”

핍은 에스텔라의 가시 돋힌 말과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좋아하게 되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신사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변호사 재거스가 찾아오고, 핍이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상속의 조건은 ‘거처를 런던으로 옮겨서 철저한 신사교육을 받을 것’, 그리고 ‘후원자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말 것’이다.

“기다려 에스텔라, 꼭 신사가 돼서 널 찾아갈테니까. 이제 나는, 나는! 런던으로 간다!”

런던에서의 삶과 신사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던 핍은 오랜만에 찾아온 조가 달갑지 않아 어색하게 대하고, 얼마 뒤 누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핍은 허버트를 만나 상류층의 예법, 소위 신사교육을 받던 중, 우연히 돈 많은 숙물신사 드러몰과 사귀고 있는 에스텔라와 마주치게 된다. 에스텔라는 여전히 핍에게 냉랭하지만, 핍은 계속 그녀에게 빠져든다.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 미스 헤비섬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네가 바라는 숙녀의 모습이야?”

성년식이 훌쩍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던 후원자가 마침내 찾아왔을 때 핼은 그가 예전에 자신이 도와준 죄수 맥위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에스텔라와 결혼시키기 위해 헤비섬이 후원자로 나섰다고 생각했던 것이 망상임을 깨닫고 실망한다. 맥위치가 런던에서 잡히면서 그의 재산은 몰수당하고, 어렵게 빚을 청산한 핼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폐허가 된 새티스하우스에서 에스텔라와 재회한다.

토론

1. 제목 <위대한 유산>의 의미는?
2.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며, 핼이 꿈꾸는 '신사'란 무엇을 뜻하나? <유리동물원>에 등장하는 신사방문객(Gentleman Caller) 또는 계급사회였던 시절 우리나라의 선비, 양반 등의 개념과 비교한다면?

활동

1. 탄탄한 서사구조를 가진 원작 소설 <위대한 유산>은 꾸준히 영화, 연극 및 드라마로 각색되고 있다. 연극 <위대한 유산>을 보면서 느낀 영화와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활동-1 추가자료

● 영화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1946, 영국)

감독: 데이빗 린, 주연: 존 밀스, 발레리 홉슨
가장 원작 소설에 가깝게 각색된 흑백영화

<위대한 유산>(1998, 미국)

감독: 알폰소 쿠아론, 주연: 에단 호크, 기네스 펠트로
명작의 재해석과 주연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

<위대한 유산>(2012, 영국, 미국)

감독: 마이크 뉴웰, 주연: 헬레나 본햄 카터, 랄프 파인즈
미스 헤비섬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헬레나 본햄 카터

2. 21세기, 우리시대의 '신사'를 대표할 수 있을만한 (국내외) 실제 인물을 생각해보고, 그 인물을 선정한 이유를 발표해보자.

활동-2 추가자료

● 명동예술극장 공연기획팀원들이 뽑은 신사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반기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통 큰 기부' **빌 게이츠**

'행복한 가족, 아름다운 기부' **션, 안성기, 차인표**

'세상을 바꾸는 힘' **버락 오바마**

'겸손한 엘리트' **유재석, 유희열**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작가' **찰스 디킨스**

등장인물

꿈을 찾아 나선 시골소년 '핍'의 성장기

<위대한 유산>은 시골 대장간 견습공 '핍'이 여러 경험과 갈등을 겪으며 꿈을 찾아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핍에게 '신사'라는 꿈을 심어주지만 베일에 쌓여있는 후원자 맥위치, 핍이 사랑에 눈뜨며 그 아픔을 알아가도록 하는 헤비섬과 에스텔라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핍을 지지하며 진정한 '위대한 유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조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핍

“나는 신사가 되고 싶어”

핍이 사교클럽에서 대화하는 법,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법, 텍시도를 유행에 맞게 착용하는 법을 배우며 외형적으로 신사에 가까워지는 동안, 그는 출신을 부끄러워하고 사치를 일삼으며 순수함을 잃어간다. 좋은 집안 출신으로 경제력과 사회적 명성을 갖춘 소위 '신사'들 사이에서 핍은 그토록 동경하던 상류사회의 삶을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신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다.

맥위치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 그 눈빛이 어떻게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넌 아직 모를거야.”

살인, 강도, 사기 등 온갖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감옥에 갇힌 맥위치는 어린 좀도둑이었던 자신을 강도로 내몰아 쇠고랑을 채운 사회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 재산을 축적했지만 죄수로 살아야 했던 그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써 대해준 핍을 신사로 만드는 것에 희망을 품게 된다. 원작에는 탈옥수 맥위치에게 죄를 덮어씌운 파트너이자, 미스 헤비섬을 파혼으로 내몬 당사자인 캄피슨, 즉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등장하지만 이번 각색에서는 생략되었다.

해비섬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야. 찢어버려. 갈기갈기 찢어버려. 남자들의 가슴을”

결혼식날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해비섬은 그 충격 속에서 평생 헤어 나오지 못하며 남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어린 핍을 처음 만난 날, 해비섬은 새카맣게 타버린 자신의 심장이 우는 소리를 핍에게 들려준다. 어리숙한 대장간 소년 핍과 심장이 없는 차가운 여자로 성장해가는 에스텔라 모두 해비섬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희생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 후원자의 정체를 모르는 핍은 해비섬이 자신을 신사로 만들기 위해 유산을 상속한 것으로 오해한다.

허버트

“내 이름은 허버트. 너를 최고의 신사로 만들어 줄 너의 개인교사야.”

이번 무대에 등장하는 허버트는 원작에서 등장하는 변호사 재거스의 사무원 ‘웨믹’과 해비섬 부인의 친척이자 핍의 신사 친구인 ‘허버트 포켓’을 합하여 재탄생한 제3의 인물이다. 허버트는 귀족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사로서의 소양을 갖추며 성장했지만, 전통과 관습에 얽매인 신사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자본가로서의 신사를 꿈꾼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클라라와 결혼하기 위해 집안과 인연을 끊고 자립을 시도하나, 태생적인 한계로 자본가로 성공을 하지는 못한다. 결국 술에 의지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 하는 도피적 태도를 보인다. 당시 급변하는 시대의 과도기적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허버트는 변호사 재거스의 소개로 핍의 개인교사가 되어 핍이 상류층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절친한 친구가 된다.

조

“다 알아. 다 이해해. 우리는 친구잖아.”

조는 어린 핍과 누나 베스를 거두어준 순박한 마음씨를 가진 대장장이이다(원작 소설 속의 조는 아내에게 매질을 당하고 더듬거리는 말투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등 순박하다 못해 사람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캐릭터로 그려진다). 억척스런 누나가 핍에게 퍼붓는 구박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친구처럼 항상 옆에서 핍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준다. 조의 밑에서 도제생활을 하던 핍이 런던에서 신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조를 부끄러워한다. 그럼에도 조는 여전히 핍을 이해해주는 친구로 남아 핍이 진정한 신사,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스텔라

"다시는 나한테 오지마. 핍, 나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없어."

헤비شم의 양녀로 새티스하우스에서 핍과 만난다. 어릴 때부터 헤비شم으로부터 남자에 대한 복수심을 배우며 자란 에스텔라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 결국, 새티스하우스를 탐내는 드러물과 남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도록 교육받은 에스텔라는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랑 없는 결혼에 이른다. 차갑고 냉정한 에스텔라도 핍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핍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맥위치가 에스텔라의 아버지라는 원작의 설정은 효과적인 극적구성을 위해 연극에서는 생략되었다.

토론

3. 극 중 핍은 두 가지 별명('헨델', '피비비핍')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헤비شم이 에스텔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5.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소설 속 인물들과 연극 속 인물들을 비교한다면?

활동

3. 원작소설 <위대한 유산>은 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주인공이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 갈등을 통해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Bildungsroman)에 해당한다. 이번 연극무대에서 이러한 성장과정(시간의 흐름)이 연출, 조명, 의상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자.

활동-3 추가자료

● 성장소설(Bildungsroman)

성장소설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한 주인공이 유년기와 소년기를 거쳐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는 소설이다. 대개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비극, 상실 등의 사건으로 인해 가족 또는 집에서 분리되며 시작된다. 주인공은 사회적인 요구와 내면적인 욕망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서히 성숙해나간다.

<주요작품>

<나를 보내지 마> by 가즈오 이시구로

<데미안> by 헤르만 헤세

<데이비드 코퍼필드> by 찰스 디킨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by 제임스 조이스

4. 조는 핍에게 유산 상속에 버금가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인물로 그려진다. 자신의 인생에서 조와 같은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깨닫기 힘들었던 경우 및 그 내용에 대해 발표해보자. 그리고 이상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가 결국 집에 돌아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데르센 동화 <파랑새>와 <위대한 유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토론해 보자.

배경분석

19세기 영국: 변화의 물결, 빛과 그림자

<위대한 유산>의 배경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로, 대영제국이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던 시기다. 18세기,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 시대를 활짝 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하며 새롭게 떠오른 중산층이 사회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과거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존경받던 '신사'는 본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야했지만 점점 물질적 풍요로움이 신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신분상승은 <위대한 유산>의 핏처럼 주로 노동자가 신사로 격상되는 경우여서, 노동자이지만 재력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신사가 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하층계급의 노동자들이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이제 고귀한 혈통이 아니어도 신분상승이 가능한 시기가 된 것이었다. 여기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영국의 식민지도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신분상승의 욕망을 부채질 했다. 식민지의 토착민들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사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극 중, 죄수로 복역하던 맥위치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밀수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여 핏에게 엄청난 금액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 또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일례다.

하지만,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모든 국민이 변화의 물결로부터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지만, 이윤 창출에 눈이 먼 고용주들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았다. 힘없는 빈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갔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비단 칼 마르크스와 같은 정치 사상가들 뿐만은 아니었다. 많은 작가들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문학작품을 집필했는데, 찰스 디킨스도 19세기 영국을 뒤덮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의 이면을 다룬 <두 도시 이야기>, <어려운 시절>,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등의 작품을 펴낸 대표적인 작가다.

관련자료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가 찰스 디킨스

- 이선주(이화여대 BK사업단 교수) * <위대한 유산> 공연 프로그램북 수록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신분상승의 욕망과 사랑

- 이인규(국민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 <위대한 유산> 공연 프로그램북 수록

찰스 디킨스와 <위대한 유산>의 시대

- 김현숙(수원대 영문과 교수) * <위대한 유산> 공연 프로그램북 수록

추천사이트

<http://www.charlesdickensinfo.com/>

<http://www.dickensmuseum.com/>

<http://www.victorianweb.org/victorian/authors/dickens/index.html>

토론

6.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 당시 대중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7. 찰스 디킨스는 이 작품에서 19세기 당시 사회의 명과 암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맥위치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설정 역시 소설 속 허구의 인물 설정은 아닌 셈이다. 맥위치 같은 탈옥수가 어떻게 큰 돈을 손에 질 수 있었을까?

활동

5. 극 중 허버트는 “신사는 일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육체적 노동이 신사의 자격 기준에서 빠져야 한다는 당시 혹은 현재 사람들의 생각이 타당,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자.

키워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가는 여정

✧ 계급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세기의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계급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다. 재력과 인품을 고루 갖춘 소수의 사람만이 신사로 존경받던 시대는 가고, 경제력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신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옷과 신발이 더럽다며 자신을 무시하던 에스텔라 앞에서 핏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대장간 견습공이라는 초라한 신분은 부잣집 양녀인 에스텔라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시골 소년 핏도 역명의 후원자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자 드디어 '신사', 상류층의 삶을 넘보게 된다.

✧ 성장

<위대한 유산>은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 소년 핏은 보잘 것 없던 유년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쫓는 가운데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신사가 되기 위해 런던으로 간 핏은 대화하는 법, 춤추는 법, 테이블 매너, 패션 감각, 음악/문학에 대한 지식에 대해 배우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 하지만, 핏은 충격적인 후원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언제나 그곳에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조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깊은 내면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다.

✧ 사랑

핏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신사가 되어야만 하고, 에스텔라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신사가 되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핏을 아끼는 조가 옆에 있지만, 핏은 신사라는 허상에 매료되어 사랑하는 조의 곁을 떠난다. 에스텔라는 남자의 배신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사는 헤비שמ의 양녀다. 헤비שמ을 대신해 남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도록 교육받으며 자란 에스텔라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얼음처럼 차갑다. 핏은 자신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에스텔라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그녀를 향한 점점 커지는 사랑의 감정을

직면하게 된다. 자신을 향한 핍의 사랑을 비웃듯 에스텔라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며 핍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뒤틀린 사랑의 기억을 품고 사는 헤비섬,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에스텔라, 조의 따뜻한 사랑을 외면하고 에스텔라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신사를 꿈꾸는 핍 모두 각기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 부정

핍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맥위치는 범죄자다. 어린 시절 핍이 베푼 작은 선행을 잊지 못하고 핍에게 큰 자선을 베풀지만, 그가 베푼 자선의 출처는 상당히 불분명하다. 죄수였던 맥위치가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개인의 출중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 모순 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인 맥위치는 영국의 식민지인 호주/뉴질랜드로 유배되었고(각색을 거친 연극에서는 런던에서 추방된 것으로 설명됨), 관리의 사각지대인 그곳에서 밀수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의 상속 대리업무를 맡아 수입료를 챙기려한 재거스 역시 맥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인 부 축적에 대한 뒤틀린 욕망이 커질수록 사회를 떠받치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다.

✧ 집착(복수)

악인이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캐릭터로 그려지는 헤비섬과 맥위치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는 '집착'이다. 한 남자에게 결혼식날 버림받은 충격과 상처를 세상 남자 전부에 대한 복수로 확대하는 헤비섬은 양녀 에스텔라를 매력적이면서 냉정한 여자로 성장시켜 남자들에게 상처를 주려한다. 한편, 맥위치는 자신을 비루한 범죄자로 전락시킨 '사회'에 대한 복수에 집착한다. 어린 핍이 보여준 선한 눈빛을 잊지 못하던 그는 핍을 신사로 만들어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에 자랑스레 보이고 싶은 대리만족적 복수를 꿈꾼다. 결국은 복수를 위해 핍을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는 헤비섬이 에스텔라를 도구로 삼아 남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집착을 키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토론

8. 당시 계급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그 이유는?
9. 핼이 신사가 되고 싶어 한 이유와 맥워치가 핼을 신사로 만들고 싶어 한 이유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활동

6.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개의 주요 키워드 이외에 이 작품을 관통하며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내보고,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
7.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하여 발표해보자.
8. 자신이 받은 혹은 앞으로 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위대한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해보자.

작가(찰스 디킨스) 소개

“가난과 고통 속에 박해 받는 이들을 동정했던 디킨스,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을 잃었다” -찰스 디킨스 묘비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그는 몸소 체험한 빈민층의 생활상을 소설 속에 그려내 급격한 산업화 속 영국의 어두운 단면을 거침없이 비판했으며, 특유의 풍자와 해학, 날카로운 시각은 대중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어려서 구두약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는 채무관계 때문에 옥살이를 했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감옥, 빈민, 고아 등은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회에 대해 절망하면서도 인간의 성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뢰한 덕분에 그는 인간미와 유머 넘치는 싱싱한 인물들을 일생 동안 탄생 시켰다.

디킨스의 작품에는 풍자 밖에 없다며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품 속 인물들은 실제보다 더 강렬한 생명력으로 살아 있어, 그 명성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 고아지만 신사로 자란 핍, 결혼식 날 버림받아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헤비섬, 섬세하고 따뜻했던 올리버, 녀석 좋은 윌러 등은 영국인 모두가 기억하는 인상적인 인물들이다. 크리스마스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는 '가진 자의 타락을 고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겠다'는 의도에서 자린고비 스크루지를 창조하기도 했다.

그는 평생 쉴 새 없이 소설을 발표했으며, 그의 이야기가 담긴 잡지는 당시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는 인기물이 된다. 1853년에는 처음으로 자작소설 낭독회를 열어 청중들에게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 후 죽을 때까지 낭독회를

계속 열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디킨즈의 낭독회가 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유명한 예술가들이 당대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곤 하는 반면 디킨스는 생전에도 스타급 인기를 누렸다. 그는 소설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고아원이나 빈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썼다고 전해진다. 지난 2012년에는 찰스 디킨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전세계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호주와 중국, 이라크, 파키스탄 등에서 디킨스의 작품 낭송회를 진행했고, 영국, 스위스, 미국에서는 디킨스의 소설과 편지, 그림, 그의 책상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으며, 버킹엄궁에서는 '디킨스 탄생 200주년 축하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디킨스에 대한 세계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주요작품

올리버 트위스트(1838) · 골동품상점(1841) · 크리스마스 캐럴(1843) · 데이비드 코퍼필드(1850) · 황폐한 집(1853) · 고된시기(1854) · 리틀 도릿(1854) · 두 도시 이야기(1859) · 위대한 유산(1861) 외 다수

토론

10. '셰익스피어는 존경하지만 디킨스는 사랑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두 작가의 어떤 차이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존경과 사랑이라는 서로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일까?
11.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과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은 모두 자전적인 작품이다. 두 작품 및 작가를 비교한다면?

활동

9. 발자크, 에밀 졸라,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등 찰스 디킨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며 사실주의 문학작품을 선보인 다른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골라 함께 읽어본 후, 19세기 후반을 강타한 사실주의 문학 작품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보자.

연출(최용훈) 소개

현 극단 작은신화 대표

<스카이라잇>, <콜라소녀>,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왕은 왕이다>, <그냥 햄릿>, <삼국유사프로젝트 -꿈> 등 최근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최용훈 연출은 한국 연극계를 이끄는 대표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에이미> 초연 당시 탁월한 원작해석과 밀도 높은 연출로 김상열연극상을 수상할 당시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논쟁적인 토론 중심의 작품을 함부로 축소시키지 않고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것을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배우의 살아 있는 말과 등장인물로 구현하면서 해석적 연출의 한 정점을 보여주었다.”며 연출가가 쌓아온 내공의 깊이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밝힌바 있다.

주요작품

맨 프럼 어스(2014) · 스카이라잇(2014) · 콜라소녀(2012) · 삼국유사프로젝트 -꿈(2012) · 동주앙(2011) · 그냥 햄릿(2011) · 왕은 왕이다(2010) · 다우트(2007) · 뚝날(2001) · 김치국씨 환장하다(2000) · 황구도(2000) · 길위의 가족(1998) · 가정의학백과(1998) · 조용한 손님(1995) 외 다수

수상내역

김상열연극상(2010) · 히서연극상 올해의연극인상(2003) · 동아연극상 연출상(2002) · 동아연극상 작품상(2002) · 동아연극상 연출상(1999) · 대통령표창(1998) · 국무총리표창(1998) ·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1997) · 영희연극상(1996) · 올해의 연극상 특별상(1996)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1994) 외 다수

토론

12. 각색(김은성)과 연출(최용훈)을 통해 속물이 되어버린 핏과 순수하던 어린 핏이 계속해서 만나는 시공간이 열린 작품이 완성되었다. 시공간이 열린 구성 및 연출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일까?

활동

10. 연극 <위대한 유산>의 각색을 맡은 작가 김은성은 “우리가 지켜야할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디킨스가 던지는 질문은 당시 영국 시민과 2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이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 및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자.

토론답(안)

1. 원제목 Great Expectations는 '커다란 기대' 혹은 '위대한 유산'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위대한 유산은 시골 대장간의 견습공이었던 핍이 받게 된 막대한 금액의 유산, 그리고 신분상승을 통해 사랑을 얻고자 했던 거대한 기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단계 나아가, 그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신사가 된다는 명목 하에 속물이 된 자아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계기', 또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의 문제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생각과 판단의 여지를 남겨주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작품 제목에서부터 타고난 이야기꾼 찰스 디킨스의 면모를 알아챌 수 있다.
2. 작품의 배경인 영국, 런던의 '신사'라고 하면 흔히 세련된 예의범절을 지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혹은 고급 양복차림에 지팡이와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연상케 한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재력을 쌓아 새롭게 떠오른 중산층이 사회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때였다. 고귀한 혈통이 아니어도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이 시기, 이상적인 '신사'의 개념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도 존경할만한 품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지칭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여유뿐 아니라 인격과 소양을 고루 갖춘 인간상이었던 '신사'는 자본주의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점차 물질적 요소만이 결정적 기준이 되는 쪽으로 변질되고 만다. 극 중 핍 또한 신사교육을 받으며, 또 물질적으로 모자람 없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며 서서히 속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 깔끔한 양복차림과는 거리가 먼 조가 핍에게 가장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 <유리동물원>에 등장하는 신사방문객은 1930년대 미국에서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의 자제들이 구혼을 하기 위해 여자의 집을 방문하는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쓰인 용어다.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는 19세기 격변기의 영국 신사에게 요구되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재력보다는 지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재력은 부족하지만 올곧은 성품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비' 같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사, 양반 모두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핍을 최고의 신사로 만들기 위해 동원된 개인교사이자 친구인 허버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핼에게 '헨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다. 헨델이 '즐거운 대장간'이라는 곡을 작곡한 데 착안한 별명으로, 대장간의 견습공이었던 핼에게 어울리는 보다 신사적인 이름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에스텔라를 두고 핼과 경쟁선 상에 있던 드러물은 준남작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다. 핼이라는 다소 어리숙하게 들리는 이름을 들은 드러물은 핼을 '피비비핼'이라고 핼을 낮추어 부르며 빈정거리기를 일삼는다.

4. 라틴어로 더 바랄게 없다, 완벽하다는 뜻을 가진 새티스 하우스와 같은 대저택을 소유한 헤비섬은 풍족한 집안 출신이다. 결혼식 직전에 파혼 통보를 받은 헤비섬은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사랑의 상처뿐만 아니라 상류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전락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헤비섬 내부에서 뒤틀린 복수심으로 변질되었다. 자신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 남자들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헤비섬은 에스텔라를 철저하게 교육시키며 키운다. 남자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라는 헤비섬의 가르침에 따라 에스텔라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여자가 되어, 진실한 사랑에는 관심조차 없는 드러물 같은 속물과 결혼하기에 이른다. 헤비섬은 에스텔라가 드러물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드러물도 그대로 겪도록 하며 희열을 느낀다.

5.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 당시 사회를 반영하듯이,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당대를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대한 유산>에서 맥위치와 헤비섬은 악인이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반해, 조는 작품을 통틀어 선한 마음씨를 가진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악인과 선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드러나는 인물설정은 찰스 디킨스의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는 악당 페깅과 친절한 노신사 브라운 로우가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공장주 바운더비는 노동자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전형적인 악인 캐릭터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는 한 캐릭터를 통해 악인과 개과천선한 선인의 극단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연극 <위대한 유산>은 원작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다면적으로 인물들을 해석하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인물들을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원작에서 상류층을 지향하는 하층민으로

그러지는 펄블추크는 연극에서는 비록 욕심은 많지만 조카를 측은하게 여기는, 즉 측은지심과 같은 한국적 정서를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각색과정에서 재탄생한 인물인 허버트가 술에 의지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모습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 찰스 디킨스는 산업화 시대 도시의 최하층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그의 날카로운 시각과 거침없는 비판, 풍자, 해학은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작가 자신도 어린 시절 빈민층의 삶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그의 글은 단지 소설 속의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독자들 자신들의 이야기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디킨스의 소설들은 주간신문에 연재되고 월간본으로 묶여 팔렸다. 고된 노동 후 마땅한 즐길거리를 찾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매주 신문에 연재되는 디킨스의 소설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월간본을 사서 읽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는 주막에 들러 다른 사람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연속극처럼 독자들의 웃음과 울음을 자아내던 디킨스의 연재소설은 다음회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며 디킨스를 '대중작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7. 대영제국의 식민지는 한때 세계 육지의 1/4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영국은 죄수들을 식민지였던 미국과 호주/뉴질랜드로 유배 보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한 이후에는 호주/뉴질랜드로 죄수 유배가 집중되었다. 영국 본토에서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한편으로는 죄수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넓디넓은 식민지 땅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죄수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 이상이었다. 널려있는 토지와 힘없는 토착민들을 이용하여 본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극 중에서 밀수왕으로 그려지는 맥위치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8. 에스텔라와 사랑 없는 결혼에 골인하는 드러물은 속물적인 귀족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에스텔라

와의 결혼을 통해 새티스하우스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준남작이라는 높은 신분의 소유자지만 자신보다 덜 배우고, 덜 가진 듯 보이는 핍을 무자비하게 멸시하는 드러물은 재물과 인격을 고루 갖추지 못한 비뚤어진 신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펄블추크는 대사를 통해 당시 하층민들을 대변하는 언어를 들려준다. "은혜를 모르면 돼지랑 다를 게 없다. 돼지는 팔수나 있지"라고 말하며 새티스하우스에 가길 주저하는 핍에게 면박을 준다. 심지어 어린 핍의 몸을 돼지고기 대하듯 거칠게 만지며 "여기 등뼈는 폭잡용으로 제격이지. 뱃살은 얇게 포를 떼서 베이컨을 만들면 되겠고 햄으로 쓰기에는 다리에 살이 너무 없어서..."라고 말하는 펄블추크에게 인간의 존엄성,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이 매일 손질하는 돼지고기에 비추어 생각하고 말할 뿐이다. 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점차 속물로 변질되어가는 드러물과 언어의 무법자 펄블추크는 당시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 핍과 맥위치에게 '신사'라는 목표를 심어준 것은 모두가 신분상승에 혈안이 된 당시의 사회분위기다. 핍은 오로지 에스텔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사랑'을 위해 '신사'가 되길 원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요조숙녀가 되어 조건이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려는 에스텔라를 위해 신사의 길을 택한다. 반면에, 맥위치는 신사가 된 핍을 통해 '계급'상승이라는 대리만족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맥위치가 평생 축적한 재산을 생면부지인 핍에게 상속하려고 한 이유는 어린 시절 핍이 맥위치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과오에서 시작되었지만 작은 잘못으로 인해 끝내 괴물 같은 범죄자로 낙인찍혀버린 맥위치는 그 누구에게도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수 없었다. 맥위치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자비하게 평가내리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맥위치에게 핍이 보여준 선행은, 그 작은 행동 이상의 의미로 다가갔던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지만, 맥위치는 핍의 선량한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소위 신사라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살아온 맥위치는 핍을 신사로 만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핍과 맥위치가 '신사'를 추구하는 방식은 "타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신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0. 셰익스피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힌다. 이러한 셰익스피어를 가진 영국인들은 이를 행운으로 여기며 셰익스피어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 <햄릿>, <리어왕>, <헨리 4세>,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고결한 문학세계는 일반 독자들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상류계층의 삶을 훑쳐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다.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밀도 높은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예술적 몰입의 즐거움을 선물했다. 반면에, 찰스 디킨스는 문학세계의 주변부에만 머물렀던 노동자, 도시의 빈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려준다. 다시 말해, 예술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며, 일반 관객들로부터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을 가진 디킨스의 작품은 영국인들에게 '행복'이라는 특권을 안겨주었다.

11. 지난 여름,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던 <유리동물원>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이다. 구두공장, 엘리베이터 보이, 전신기사, 웨이터, 계산원, 극장 안내원 등 각종 굵은일을 하며 작가의 꿈을 키운 테네시 윌리엄스 자신과 정신질환을 앓던 누이 로즈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다. 태어난 시기도, 나라도 다르지만 테네시 윌리엄스가 경험한 불운한 가정사와 젊은 시절의 경제적 궁핍은 찰스 디킨스가 19세기 영국에서 경험한 삶과 닮아있다. 어린 시절, 찰스 디킨의 가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 다녀야 했고, 끝내 빚을 갚지 못해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디킨스는 소설가의 꿈은 잠시 접어둔 채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아 구두약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작가가 어린 시절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훗날 그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품을 집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비드 코퍼필드>,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과 같은 자전적 작품을 쓰게 되는데, 후기 작품인 <위대한 유산>에서는 진정한 신사의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12. 시공간이 열린 구조는 순수했던 어린 핏과 속물이 되어버린 핏을 한 번에 보여주며 한 인물의 서로 다른 모습을 대치시킨다. 각색과정을 통해 원작 소설이 가진 복잡한 구조와 치밀한 묘사는 일부 덜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이러한 시공간이 열린 구조를 구현해냄으로써 한 인물을 둘러싼 복합적인 감정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 토론답(안)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답안 중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가능한 답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음.

www.MDtheater.or.kr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100-021)
Tel: 1644-2003 www.MDtheater.or.kr